

철학사

45 버클리 의 반론에 대한 답변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자, 다시 조지 버클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난번 이야기를 통해 이제 그가 펼치는 철학적 입장과 그에 대한 논증이 훨씬 쉽게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가 주장하려는 내용이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논증 방식을 살펴보면 그 타당성이 거의 100%는 인정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관련된 세 가지 기본 철학적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즉 기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질이라는 개념이 경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명목론자인 그는 우리에게 추상적인 관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물질'이라는 단어에는 지칭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실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로크 자신도 물질이란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정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 대상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서 비롯되고, 일차적 속성에 대한 관념이 이차적 속성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 모두 온갖 관찰 조건에 상대적이라면,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은 모두 동일한 상태, 즉 주관적이며 단순히 우리의 관념의 속성일 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 바탕에서 청각에 있어서 불변하는 속성, 또는 불변하는 속성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인 속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경험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마음과 그 관념뿐이며, 물질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단지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이 결합된 관념일 뿐 물질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주의, 물론 그가 거기서 멈춘다면 즉각적인 반론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정연한 균일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히 뉴턴 시대에는 자연이 고정된 법칙, 고정된 힘, 완벽한 기계와 같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이해되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외부 물질적인 것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관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의 사고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의 출발점은

본질적으로 데카르트의 사상과 같습니다. 저는 관념, 즉 관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우리 생각들 중에서 능동적인 생각과 수동적인 생각을 구분 해야 한다 고요. 다시 말해, 자발적인 생각과 비자발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해서 갖는 생각들도 있으니까요.

나비 날개를 가진 요정 기린이라는 제 생각은 제가 떠올린 것이고, 제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의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비자발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오는 대부분의 감각적 인상들이죠. 이들은 그저 원치 않더라도 의식 속에 자리 잡는 것들입니다. 비자발적인 생각들.

내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생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동적인 생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들은 종종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채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통에 대한 생각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자발적이거나 수동적인 생각들에는 내 마음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는 정신적인 것이므로 정신적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다른 원인은 다른 마음일 것입니다. 그는 정신 텔레파시, 특히 당신이 나에게 온갖 아이디어를 준다는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오, 그의 사고에서 다음 단계는 자연의 균일성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경험의 균일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로 이루어진 경험 속에는 예측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서 거의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인 경험, 일반적인 질서, 일반적인 예측 가능성, 공개된 증거 등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 .

그러므로 이러한 균일성의 원인으로서는 어떤 더 위대한 정신, 어떤 최고의 지성, 어떤 무한한 영, 즉 신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은 수동적 관념의 경우에 필요한 또 다른 정신입니다. 신은 우리의 수동적 관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질서정연한 경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마음에 정보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은 일종의 신성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 그 질서에 적응 하고, 그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로고스가 신의 로고스에 참여한다 ' 와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신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은 신이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질서정연한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뿐 아니라 존재하는 마음에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모든 관념의 필요 원인일 뿐 아니라 충분 원인이기도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은 바로 그러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연 세계의 창조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유한한 정신을 창조하신 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셨겠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 카우프만이 237쪽, 선집이 시작되기 직전에 삽입한 짧은 시(시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를 읽어보셨기를 바랍니다 .

그거 읽어보셨어요?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군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에도 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걸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숲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소리가 나긴 할까요 ? 아무도 없을 때에도 잔디밭에 나무가 서 있기도 하고요.

신께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도 이 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시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봐요, 당신의 놀라움이 이상하네요. 저는 항상 운동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충실한 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해내신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갖 반론을 생각해내셨을 겁니다.

카우프만이 몇 가지를 알려주긴 했지만,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궁금했거든.

환각에 시달리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그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까요? 아니면 착시 현상을 볼 때요? 착시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환각을 겪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 네.

환각 같은 거 말이죠. 네, 그러니까 환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오류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나치게 활발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꿈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이 꿈을 모두 신의 계시라고 설명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당신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반론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 악의 충분조건이자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분은 악의 문제에 대해 꽤 자세하게 다루셨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카우프만은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가 자연 지식의 원리에 관한 이 책의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악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유신론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물질성이나 물리적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 즉 육체적 고통, 암, 토네이도, 그리고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설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들은 하나님이 계신 물리적 환경의 일부인 물리적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어긋나면 목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악을 설명할 물리적 원인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수동적인 경험으로 다가오는 한, 신이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념론은 종종 이 부분에서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념론자들은 유한한 신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능이 무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조차도 유한한 인간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고려할 때,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상주의자들은 물리적 악은 환상에 불과하며, 환각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의 어딘가에 기독교 과학의 입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이상주의적 형이상학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기독교 과학 배경을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버클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 학생이 "제가 자라온 환경이 바로 버클리였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버클리 본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까요? 그는 당연히 뉴턴이 묘사한 대로 자연 세계는 고정된 질서를 가진 세계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 질서는 신에 의해 임의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의 일반적인 질서가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은 예측 가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연의 과정을 이해하려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하고 자연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의 계획, 모든 인간의 목적, 모든 정신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은 그가 말하는 특정한 불편함 보다 훨씬 더 큽니다 .

그러니까 그는 역사적으로 '더 큰 선'이라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악이 허용된다는 거죠. 악은 더 큰 선을 위해 세상의 질서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

이제 '특별한 불편함'이라는 표현은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 즉 자연적인 악이야말로 대조를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선한지 보고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 경험에 쾌락과 고통이 수반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자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존 로크가 윤리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쾌락과 고통은 일종의 보상과 처벌을 제공하며, 옳고 그름을 배우는 데 내재된 규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그러니까 이견 일종의 '더 큰 선'이라는 논리죠. 물론 이견 기독교 유신론자들이 수 세기 동안 자연재해에 대해 써왔던 논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바로 '더 큰 선'이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주의자가 대의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관해서는 그는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동적인 관념입니다 .

에게 미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의도의 영향에 따라 그들의 경험을 일관되게 정하십니다. 따라서 자유 의지 논증과 더 큰 선 논증을 결합하면 이 문제가 해결 됩니다 .

자연적인 악이 자연의 과정의 일부 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 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필멸의 존재입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적어도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 맞다, 맞다.

하지만,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은 타락으로 인한 자연적인 악입니다. 사실, 유한한 물리적 존재는 존재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 아담은 멸절한 나무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죠.

있잖아요? 저는 자연의 악이 타락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에덴동산 바닥이 살균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벌레들이 밟혀 죽었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이라고 생각해요 . 그리고 만약 동물의 죽음이 자연의 악의 일부라면, 그건 그렇고, 뭐, 아시겠죠.

좋아, 데이비드, 이제 생각해 봐.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 보자면, 버클리엔 성육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 그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 버클리엔 뭐라고 했을까? 글썄, 버클리엔에게서 후계자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야. 걸보기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조금만 했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단지 중간 단계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고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부여한 다음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두어 우리가 온갖 지각 능력을 갖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두시고 이 모든 지각 능력을 우리 존재 안에 자연스럽게 붙여넣어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누가 신경 쓰겠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식 표현으로 어떻게 옮길까요? 버클리 식이라고 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음,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한한 정신을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연 세계에 대한 질서 있는 경험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성육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육체란 무엇일까요? 버클리식 표현으로 육체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정한 관념이나 경험들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다른 누구 못지않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아주 드문 경우죠.

알겠어요? 그는 경험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근저에 있는 궁극적인 실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물어보려 했는데, 곧 그녀가 우리가 수동적인 관념을 갖게 되는 건 신이 그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관념들도 받아들이셨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에서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분이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을 이해해 온 방식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라면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네.

이건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 머릿속에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 신이 당신을 내계로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당신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내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 네.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알겠습니다.

데카르트, 로크, 버클리 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 대략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이제 데카르트로 돌아가 보죠 . 거기가 가장 명확한 답이니깐요.

데카르트의 이론에서 정신과 신체는 결합된 개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도 정신과 신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두 번째 신체의 외형이나 행동의 물리적 변화는 첫 번째 신체에 인과적 영향을 미쳐 신체 상태, 뇌 상태, 감각 자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 때문에 정신 상태가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1신체에 대한 경험과 유사한 제2신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통해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마음은 신체 상태와 연관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 이는 내 정신 상태가 내 신체 상태와 연관된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유추에 의한 논증입니다.

M1이 첫 번째 신체에 해당하는 것처럼, M2는 두 번째 신체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 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존 로크는 데카르트처럼 정신의 실체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은 같습니다.

자, 버클리가 등장했을 때, 왜 달라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제가 신의 은혜로 두 번째 신체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고, 신께서 제게 두 번째 신체에 대한 경험과 첫 번째 신체에 대한 경험을 주신다면, 유사점이 있는 한도 내에서 두 번째 정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되시죠? 특히 신체 활동 중 일부는 기호를 만들거나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이 "나는 ~ 때문에 당황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 만약 제가 그 단어들을 제가 사용하는 단어로 인식한다면, 유추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 행동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건 일반적인데요. 지식에 대한 표상론이 있는 곳에서는 늘 그런 식이죠.

사실, 언뜻 보기엔 좀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당신 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유추를 통해 논증해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논증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즉각적인 인식입니다. 외형이 추론의 전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저는 유추적 추론보다는 유추적 인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등장한 유럽 대륙 철학 전통의 일부 학자들, 특히 헤겔 철학에 이르러서는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내가 다른 자아, 즉 또 다른 자아와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만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주인은 오직 노예 앞에서만 자신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노예는 오직 주인 앞에서만 자신을 노예로 인식한다는 것 입니다.

아시 겠죠? 모든 종류의 인간 자기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경험, 경험의 기본 토대는 데카르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인칭 단수 가 아니라는 거죠 .

'나' 의 경험에 앞선다. 알 겠어요? 19세기에 그런 식으로 발전했고, 거기서 마틴 부버의 '나-너' 개념이 나왔죠. 알 겠어요? 그는 ' 나 -너 ' 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라고 말해요 .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는 거죠 .

나는 생각했다. 우리.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모두를 원자로 만들어버린 18세기의 개인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다.

사회적 원자. 브라이언, 또. 잠깐만.

제 생각엔 오히려 통제라는 측면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제 말은, 당신의 생각이 제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이해해요. 네. 하지만 당신은 나무나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처럼 신이 제게 심어주는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인가요, 아니면 저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니, 저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지성을 지녔어요. 저도 진정한 지성을 지녔죠. 제 지성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실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일 뿐이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그럼 신이 통제하는 걸까요...? 제가 말하려는 건... 신이 당신의 마음, 제 마음을 통제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거죠. 신이 당신이 제게 주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제게 주입할 것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우연론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도록 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 이제, 비물질적인 실체. 마음, 영혼, 그리고 데카르트는 동의어입니다.

정신, 즉 영혼은 비물질적인 실체입니다. 하지만 중세나 고대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와 중세 시대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생명 자체를 포괄하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와 고대에서 '이성적 영혼', 즉 독립적인 존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데카르트에 이르러 단순히 '정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크 학파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버클리 학파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처럼 단순히 의식을 가리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식 그 자체입니다. 죄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비활성 상태이고 활동적이지 않다면... 아니요, 모든 생각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나 의지가 있는 걸까요? 그것이 활성화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활성화된 아이디어란 제가 시작하는 아이디어들을 말해요. 이해되지요? 자, 여기서 '나'가 정신 이든, 영혼이든, 의지든... 좋아요, 그냥 '나'라고 할게요. 제가 하는 거예요. 네.

네. 마음, 네, 이걸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를 강조하는 거죠. 정신은 사실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저 비물질적인 무언가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전혀 없죠. 사실, 지난 학기에 만났던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흡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희박하고 물리적인 기체 형태의 존재를 뜻할 뿐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영혼은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성적인 영혼, 즉 정신, 비물질적인 부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물론 정신의 여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의지, 지성, 정신적 능력. 의지는 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지란 간단히 말해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에게 무슨 짓을 하면 ,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크리스틴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험에서 그녀에게 F 학점을 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악의적인 행동, 그런 종류의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건 의지의 행위가 개입된 것이니까요.

단순히 생각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마음의 다양한 변형일 뿐입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아니요, 같은 게 아닙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마음'은 심신 문제, 데카르트의 이원론 등을 논할 때 사용하는 고전적인 용어입니다.

'정신'이라는 단어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더 역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때때로 비물질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혼'은 이 시기에 '정신'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불멸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기능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능력적인 용어이지, 실체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실체, 즉 실체적인 용어입니다.

당신의 비물질적인 부분 말이에요. 알겠어요? 에스더?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첫째, 명목론으로 돌아가서, '물질'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습니다. 경험적 의미가 없죠.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는 '물질'이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물질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붉은색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고, 매끄러운 것도 있고, 둥근 모양도 있고, 시끄러운 것도 있다. 그런데 물질이란 무엇일까? 물질은 어떻게 생겼을까? 로크는 우리가 이러한 다른 물리적 사물, 물리적 경험들로부터 물질이라는 개념을 추상화한다고 말할 것이다. 무엇을 추상화할까? 만약 그것이 붉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네모난 모양도 아니고 둥근 모양도 아니고,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음, 물론 그는 무한한 지식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물질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라고 할 거예요. 물질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보다 미지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물질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제를 기억해 보세요. 데카르트 이후로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념들은 물질 세계의 물질에 대한 관념, 다른 마음들에 대한 관념, 그리고 신에 대한 관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그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데카르트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버클리가 말하는 건 단지 "아니요, 그건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증명할 수 있어요."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의 주장이 뭔지 궁금했죠? 첫째, 추상적인 개념에 관한 거예요.

둘째, 1차적 특성과 2차적 특성에 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서 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풍족함 등이 창조주가 지혜롭고, 전능하고, 선하다는 충분한 증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일반적인 논증 방식이죠. 신의 존재에 대한 인과적 논증은 신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런데 신이 선하다는 개념은 중세 시대를 거쳐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은 선이다.

이란 무엇일까요? 음, 그런 의미에서 선이란 모든 자연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베클리가 신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신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선함을 의미하니까요. 신이라는 개념 전체가 선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악한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신이 아닌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 내용이 제게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입문 수업에서 '뒤쪽에 있는 뇌'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통 안에 있는 뇌가 아니라 진공 상태의 정신이라는 점만 다르죠.

네. 네, 당신은 평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모든 것은 전자와 양성자, 그리고 원자핵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견고한 구조물이 되네요. 네.

우리는 이제 물질이 마치 작은 입자처럼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무언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물을 넣으면 모래알갱이가 떠다니잖아요. 모래알갱이는 아주 작지만, 그것들이 모두 모이면 어떤 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때때로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과학 사상의 역사는 '물질의 비물질화'라는 제목으로 불리곤 합니다. 물질의 비물질화. 그리고 그 변화를 알 수 있는데, 18세기에는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알갱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에너지(E)가 MC^2 와 같다는 사실, 즉 물질이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은 생성될 수도 소멸될 수도 없다는 뉴턴 물리학의 물질 보존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18세기 물리학과 같은 물질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분자 입자 이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단하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알갱이일까요? 아니면 알갱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에너지의 분출물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은 베르켈이 하고 있는 일의 또 다른 측면인데, 그가 지금까지 말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질문은 뉴턴의 물질 개념이 어떤 경험적 근거,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뉴턴이 물질에 대해 한 말에 집중해 왔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신 반론에 대한 그의 답변을 보면 물질뿐만 아니라 힘, 공간,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뉴턴 개념이 모두 경험적 근거가 없다면, 뉴턴이 주장하는 경험 과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뉴턴 과학에는 경험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버클리도, 데이비드 흄도 아니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뉴턴 이후의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네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물질 자체가 수동적이고 비활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어떤 힘이든 잠재력을 지닌 채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버클리에서는 수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꽤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주 수동적이죠. 유럽 대륙의 사상가들 중 일부에서는 좀 더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라이프니츠의 경우, 활동성은 물질 자체가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수동적이고, 어떤 작용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개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초기 물질 개념과는 이질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그리스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사 강의를 하는 사라 마일즈 교수가 어제 오후에 그러더군요. 데모크리토스와 같은 맥락의 로마 철학자 루크레티우스에 이르러서는 물질이 능동적이라고 본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전통을 잇는 중세 철학자들에게 물질은 잠재력입니다. 이제 끝에서 Y를 빼면, 물질은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잠재력이 있다 . 물질 자체에는 내재적인 목적론이 있다. 본질적인 탈로스 (talos, 목적론적 의미)가 있다.

과학 혁명과 함께 기계론적 과학이 도입되면서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이 상실되었고,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단순하고 수동적이며 표면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클리 대학은 바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네, 그 부분도 다룹니다.

아주 간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버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신이 주시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것 또한 신이 주시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물질은 경험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버클리가 하려는 것은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로크의 증거주의를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증거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클리는 그의 조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증거에 비례하여 믿음을 두는 것이죠. 좋습니다.

255쪽부터 나오는 그의 반론에 대한 답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2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면한 신학적 반론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면, 그의 저서 『자연지식의 원리』 완본을 찾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신학적 문제점은 적어도 그의 견해와는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버클리는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시간을 내어 데이비드 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흄은 영국의 위대한 경험주의 철학자 세 명으로 꼽히는데, 바로 로크, 버클리, 그리고 흄입니다.

둘을 구분하는 차이점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크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자인 것 같습니다. 즉, 정신과 육체 모두를 이원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만큼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버클리는 정신주의자입니다. 정신과 신체 모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그 관념만을 논하는 것입니다.

훙은 모든 형이상학적 지식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어떤 형이상학적 입장도 옹호하지 않았다. 그는 심신 이원론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유물론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념론을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실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실에 대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관념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외부 사물을 나타낸다는 모델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훙은 우리가 경험 너머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외부 사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실체인 마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경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걸 아는 것에 회의적이에요. 그는 그걸 아는 것에 회의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믿음은 있지만 지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경험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훙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현상론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것은 현상, 즉 겉모습일 뿐, 실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설명을 표상론이라는 틀 안에 넣어보면, 훙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버클리와의 매우 비슷할 겁니다. 훙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인과력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관한 버클리의 주장을 따릅니다. 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정신에 대한 지식과 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증을 펼칩니다. 즉, 관련된 인과적 추론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시다시피, 로크가 발전시킨 윤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 즉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존 로크의 자연법 윤리 역시 훙에 의해 배제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경험주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에 의존하게 될까요? 형이상학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본성에 대한 경험적으로 도출된 지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도덕적 감정, 즉 도덕적 느낌에 대한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학에서 그는 우리가 윤리적 주관주의자라고 부르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우리의 도덕적 느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뭔가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건, 당신과 저의 공통점을 보고 당신이 받는 대우를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저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불공평해!"라고 외칩니다. 그 말은, 아야, 아프다는 뜻입니다. 윤리적 주관주의자.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현상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윤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흄스와 로크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두 사상가 모두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도덕적 지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경험의 그러한 실증적 요소들이 흄과 같은 사람에게는 윤리학의 전체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흄의 저서를 읽을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가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 즉 회의론자는 '나는 모르고, 어떻게 알아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것을 부정하거나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모른다는 사실이 다른 이유로 그가 특정한 것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의 존재를 믿습니다.

버클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영혼의 존재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것에 대해 어떤 실체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데, 그의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는 걸까요? 믿음은 논리적 과정이나 경험적 증거의 결과가 아니라 심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는 우리의 관심을 증거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심리학으로 돌립니다.

자, 흄의 첫 장을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가 되되, 그 모든 철학 속에서도 여전히 남자답고 여자다워라." 음, 사실 그는 '여자'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덧붙인 말입니다. 그는 “여인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 본성에는 우리가 믿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철학에는 논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네, 좋습니다.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